

2025 Analyst 간담회

우리는
미래를 연다



2025.10.23

LPG의 힘으로
LNG를 거쳐
NET Zero로 간다

Part I .

간담회 목적/Agenda 발제

SK가스

2025 Analyst 간담회



[금번 애널리스트 간담회 목적

SK가스의 Valuation Gap에 대해 자본시장 전문가인 Analyst와의 소통의 장 마련

간담회 배경/목적

상반기 CEO Investor Day 통해 회사의 성장 지향점 제시

- ✓ SK가스만의 경쟁력(Beyond the limits) 통한 안정적인 EBITDA 창출과 Connect 힘
→ Sustainable한 성장 추구

SK가스의 현 주가 vs 증권사 목표주가 Gap 존재

- ✓ 내재가치 평가(DCF 활용) 결과, 시장가치(現주가/기관별 목표주가) 대비 저평가로 산출

Value Gap 축소를 위한 신규사업 업데이트 및 Analyst 의견 청취

Message

*"25. 6/18일
CEO Investor Day Recap"*

*9개社 증권사
SK가스 평균 목표주가
(300,000원)*

*신성장 사업 Update,
애널리스트 의견/질문*

['25 CEO Investor Day Recap

상반기 Investor Day를 통해 SK가스만의 본원적 경쟁력 및 중장기 성장 지향점 제시

SK가스 Connect의 힘, Beyond the limits

1

Commodity 차별화

2

Trading Arbitrage化

3

Infra 사업 고수익화

SK가스의 성장 지향점

안정적
EBITDA

울산 Value Chain 기반
→ Stable한 수익 창출

Connect

기존 자산/계약기반 Connect의 힘
→ Asset Light, 효율적 투자

Growth

재무구조 안정화 및 체력 강화
→ 주주환원 및 신규 투자 확대

"매년 TSR 10% ↑ 추구"

['25 CEO Investor Day 주요 Questions

1. 실적 부진 투자회사에 대한 향후 계획(처분 등)

2. 향후 4-5년 내 연결 기준 당사 부채 축소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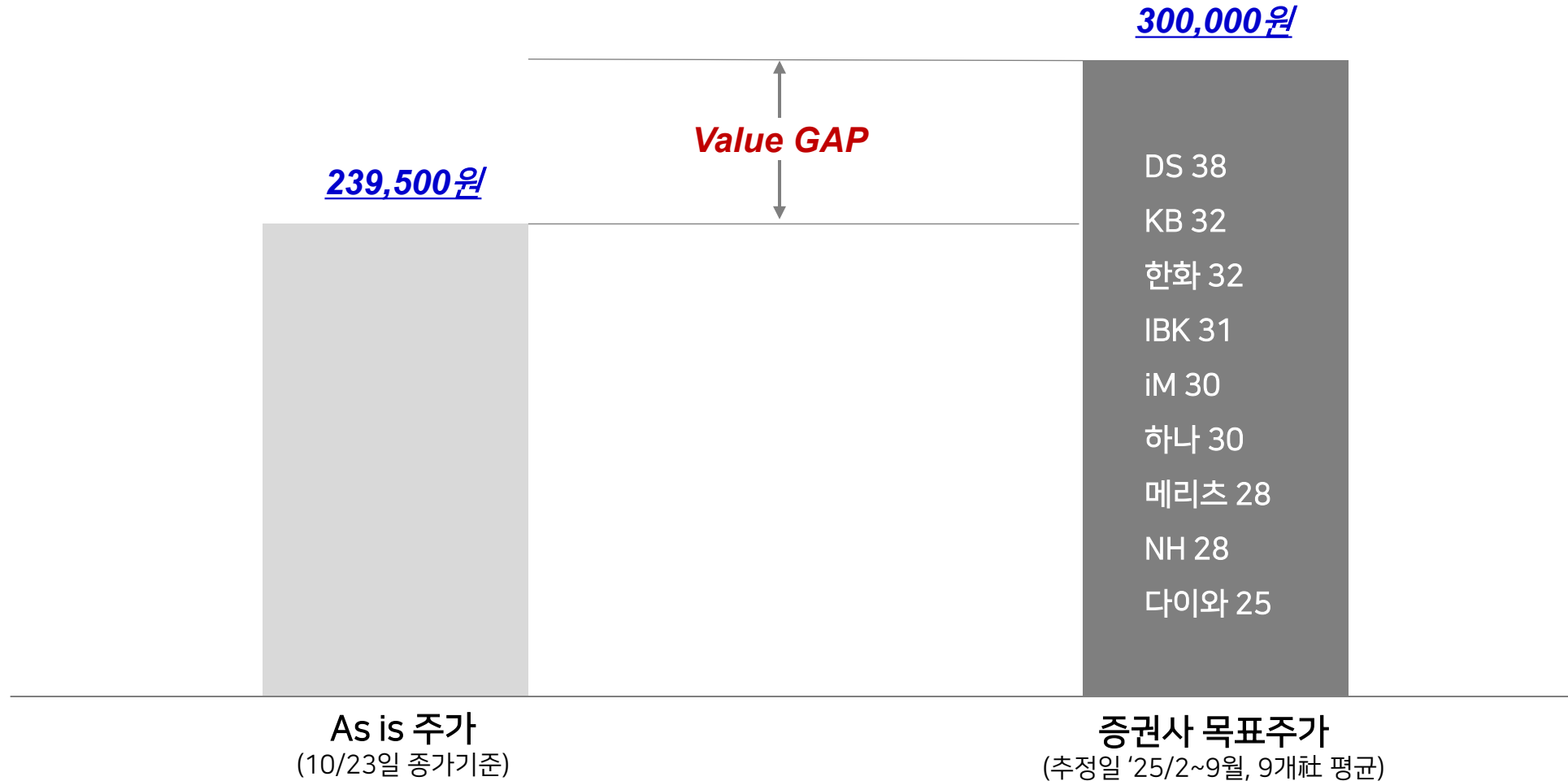
3. GPS의 신규 전력 수요처 발굴 필요성

4. 미국 LNG 계약 관련 검토사항

5. 주주환원 측면에서 배당성향 확대 고려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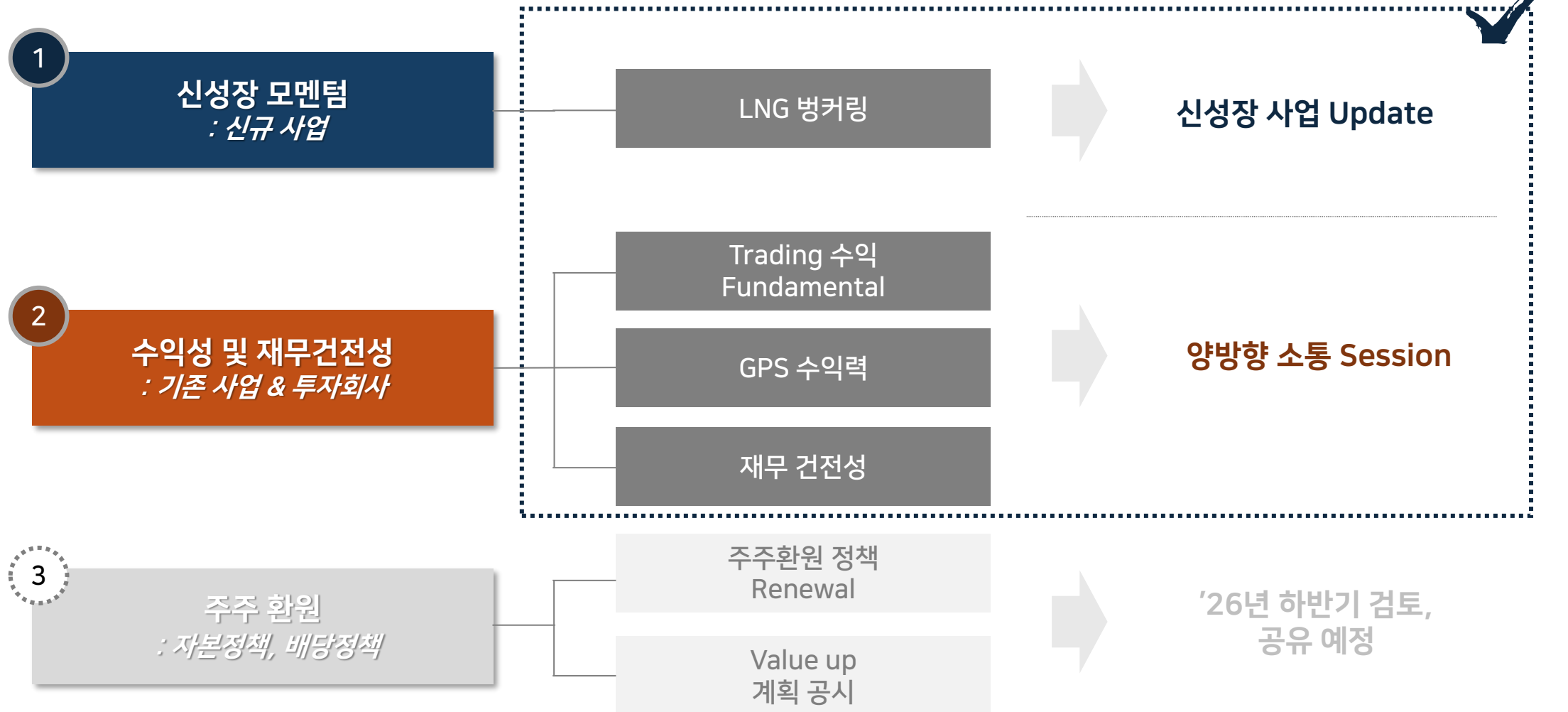
[Valuation Gap : SK가스의 적절한 Market Value는?

현재 시점 SK가스의 주가(Market Value)는 증권사별 평균 목표주가 대비 약 20% 저평가 상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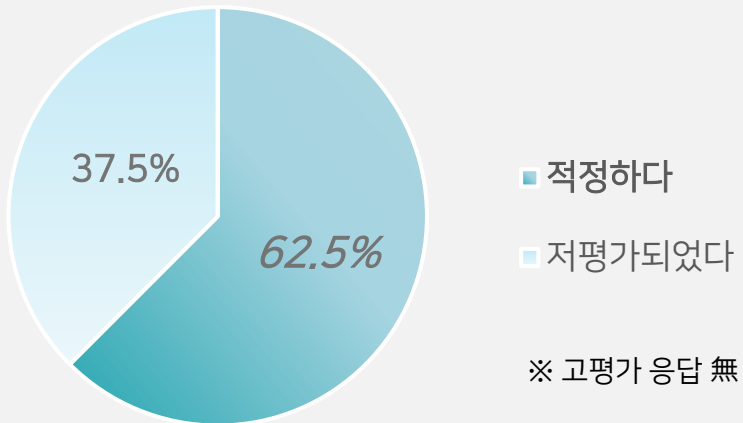
[금일 간담회 논의 Agenda

SK가스 신성장 사업 소개 및 재무건전성, Trading/GPS 수익력 등에 대한 양방향 Q&A 진행



[참고 : 참석자(8인) 사전설문 결과_객관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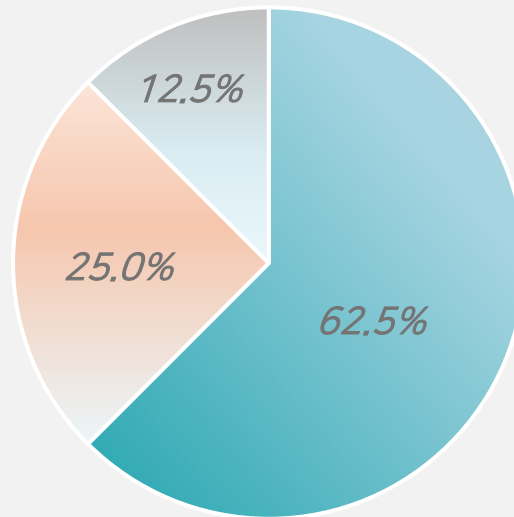
① SK가스의 현재 주가의 저평가/고평가 여부



☞ 저평가되었다면 그 이유는? (중복응답)

- 새로운 성장 모멘텀 부족 (60%) ✓
- Trading 수익 변동성 및 불확실성 (60%) ✓
- 지배구조 (유통주식수 부족 등) (40%)
- SK Advanced 등 투자회사 이슈 (2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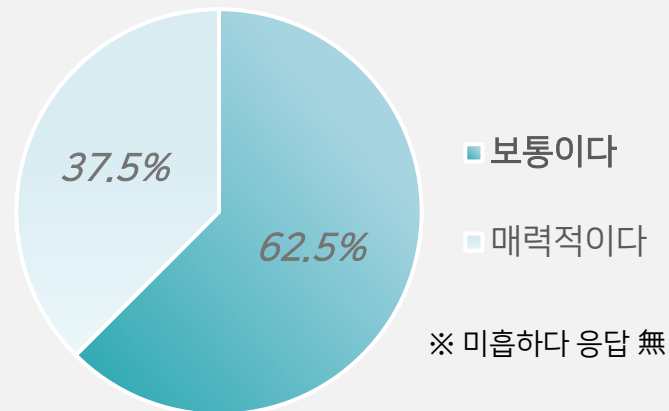
② SK가스의 'Trading'과 'Optionality' 수익구조에 대한 신뢰 정도



- 일정 수준만 Sustainable한 수익으로 본다 ✓
- 구조화된 수익으로 보고 신뢰한다
- 솔직히 잘 모르겠다

※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 無

③ 현재 SK가스의 자본정책(배당정책)의 주주 관점에서의 매력도



☞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바람직한 자본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?

- 배당성향 증대 (80%) ✓
- 자사주 정책 (20%)

Part II .

신성장 사업 Update

LNG 벙커링 사업 : Biz Innovation실 이학철 실장

SK가스

2025 Analyst 간담회



해양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체연료로서 LNG 벙커링 수요 급속히 확대 중

- 해양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전환 필수, LNG 독보적 우위
 - IMO 및 유럽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
 - 친환경 연료 중 LNG가 메탄올/암모니아 대비 경제성, 수급, 안전성 등에서 우위
 - Bio-LNG 연계 시 장기적인 친환경 옵션으로 LNG 지속 활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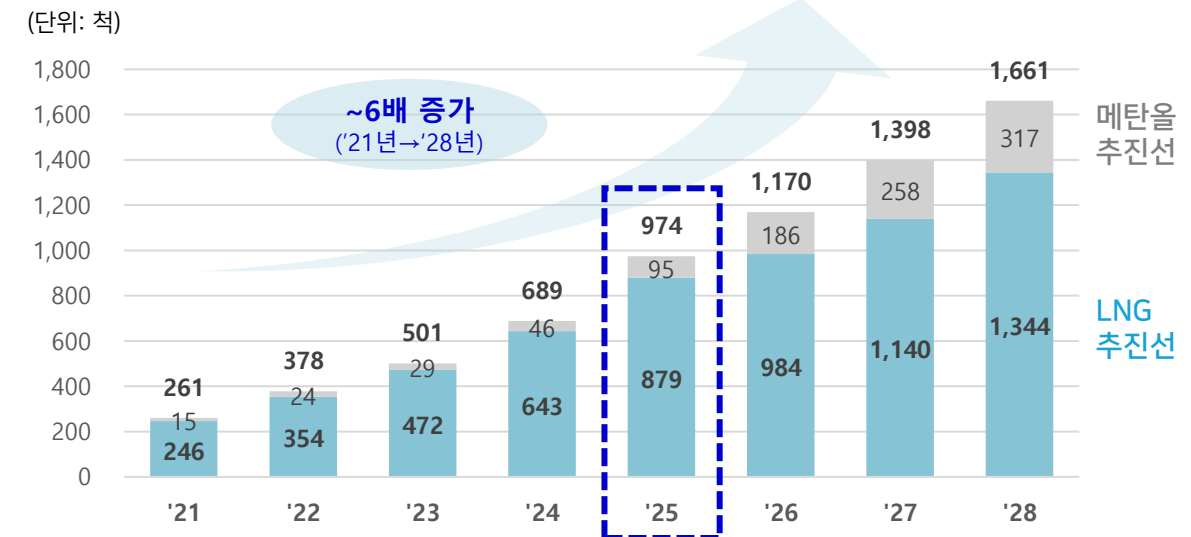
- 현재 운영/발주 중인 친환경 연료 선박 중 80~90% 이상이 LNG 추진선
 - '25년 글로벌 친환경 운영 선대 약 1,000척 중 약 90%가 LNG 추진선
 - LNG 추진선 '21년 250척 → '28년 1,350척으로 약 6배 증가 (지속 추가 발주 중)
 - 기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도 LNG 추진선으로 발주 변경 중

친환경 해상 연료 간 경쟁력 비교

친환경 연료	LNG	Bio-LNG/ E-LNG	Bio- Methanol/ E-Methanol	Blue Ammonia/ E-Ammonia	Blue H2/ E-H2
연료 경제성/ 수급 가능성					
선박 엔진 가용 기술					
안전 성숙도					
공급 인프라					

(출처 : DNV, S&P Shipping and Bunker Summit, SKga Analysis)

글로벌 친환경 선박수 ('25.0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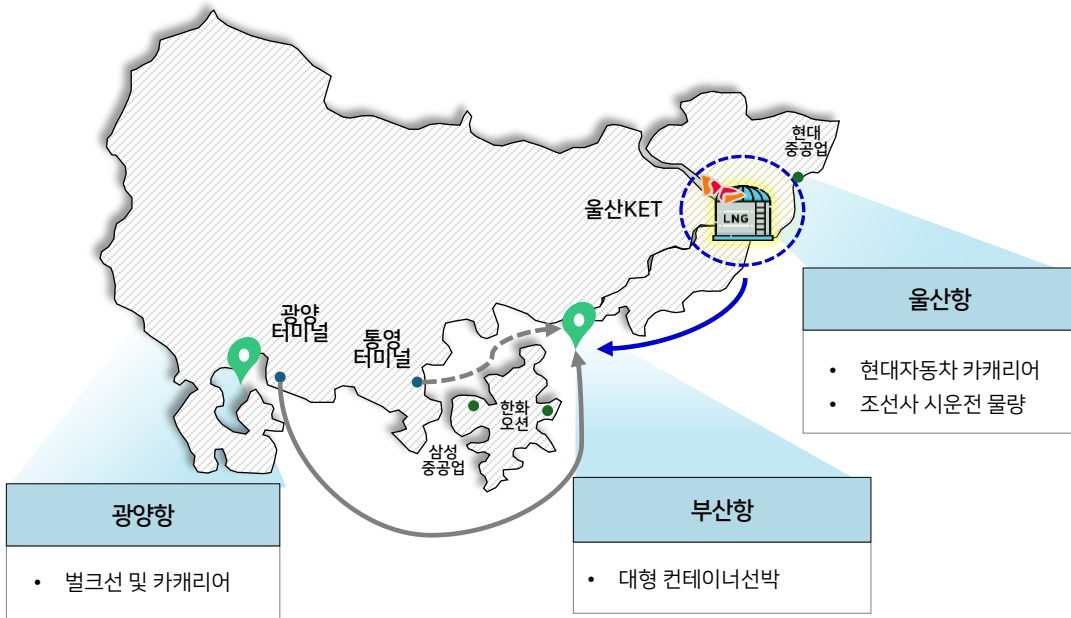
(출처 : DNV, Clarksons Research)

국내 동남권 수요 대응이 가능한 최적 입지 및 인프라 경쟁력 보유

입지적 경쟁력

“국내 LNG 벙커링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동남권 중심에 위치”

- 국내 최대/세계 7위 부산항 근접 입지, 컨테이너선 수요 대응 유리
- 울산항 내 자동차운반선, 조선사 시운전/인도출항 수요 대응 중
 -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선 대상 장기공급계약 체결 완료



인프라적 경쟁력

“국내 최대 규모 벙커링 전용 부두 기 구축/운영 중, 최대 규모 벙커링 공급선 건조 중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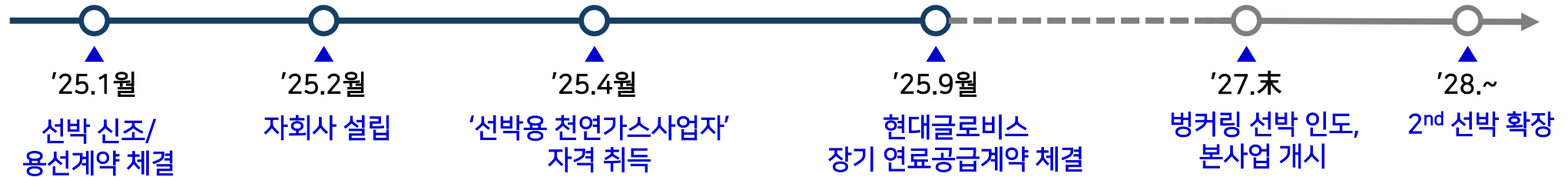


구분	KET	통영터미널	광양터미널
벙커링 선박 사이즈	18,000 cbm ¹⁾	7,500 cbm	12,500 cbm
재선적 유량	2,500 m ³ /hr ²⁾	1,000 m ³ /hr ²⁾	(건설 중)
부두 목적/혼잡도	벙커링 전용 부두	검용 부두	

1) 국내 최대 사이즈 벙커링 선박으로, 초대형 LNG추진 컨테이너선 공급 가능 및 공급 효율 극대화(Milk-run)

2) 18,000 CBM 선박 선적 기준으로 환산 시, 재선적 소요 시간 KET 7.2시간, 통영 18시간

'25년 벙커링 자회사 '에코마린퓨얼솔루션' 설립 및 사업 요건 확보. '27년말 본격 사업 진출 예정



LNG 벙커링선박 신조/장기 용선계약 체결

- 국내 최대 규모 LNG 벙커링 선박 (18,000 cbm)
- HJ중공업 건조, H-Line 선주, SK가스 (EMFS) 화주 구조



장기 연료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요건 확보

- 울산항 LNG 벙커링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
- 향후 연료 공급 확대 및 타 친환경 연료 공급 협업 계획



울산항의 친환경 연료 공급 리더로서 국가 항만 경쟁력 제고 역할 기대

해수부 비상장관회의 보도자료 ('23.11)



해양수산부

보도자료

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

보도일시 (인터넷,지면) 2023. 11. 15.(수) 08:00 배포 2023. 11. 14.(화) 16:00

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

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

- 해수부, 「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」 발표

-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%로 확대

□ (공급거점 지정) 울산항^{*}을 '친환경 선박연료 공급항만'으로 지정하여 울산항뿐만 아니라 부산항 기항 글로벌 선사 수요에 대응

- BPA(부산항만공사)-UPA(울산항만공사) 간 친환경 벙커링 협력 MOU를 체결하고, 부산항 벙커링 수요에 대비해 양 항만간 공동 대응*

- 울산항을 통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대비, LNG의 경우 가스공사 통영기지에서도 부산항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

□ (선박 전환) 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조선의 71%가 친환경 선박^{국제해사기구}으로 발주, 글로벌 선사는 LNG·메탄올 선박으로 선대구조 개편

* 국내조선 발주 800척 중 친환경 선박 566척(LNG 365척, 메탄올 63척, 클락슨 '23.9월)

○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향후 항만의 경쟁력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(이하 벙커링)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

* 선사는 친환경 선박의 항로 검토 시, 항만별 연료 공급망 여부를 최우선적 고려

"부산 등 동남권 수요 대응을 위한 '공급거점 항만'으로 울산 지정"

- 해수부, 울산항을 '한국 동남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거점 항만'으로 지정
- 부산항 컨테이너선 및 울산항 자동차선 등 친환경 벙커링 수요 대응

"Feasible한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국가 항만 경쟁력 제고"

- 타 연료 대비 LNG 우위 지속 전망, 국내 기항 선박 급유 수요 확대 예상
- 울산/부산 공급을 위한 최적 입지 경쟁력 보유 (울산 KET Terminal)